

시간표현과 인용표현 학평 기출 문제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국어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는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발화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뜻하고,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을 가리킨다.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면 '과거 시제',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 시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이면 '미래 시제'라고 한다. 시제는 다음과 같이 어머니 시간 부사를 통해 실현된다.</p>			
시제의 종류 문법 요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았/었, 았/었, 더	·동사: 는, - ㄴ ·형용사: 없 음	겠, (으)리
관형사형 어미	·동사: (으) ㄴ, 던 ·형용사: 던	·동사: 는 ·형용사: (으) ㄴ	(으)ㄹ
시간 부사	어제, 옛날 등	오늘, 지금 등	내일, 곧 등

시간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는 항상 특정한 시제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았-/었-'은 주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하고, ㉠ 미래의 상황을 표현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 찬호는 어려서부터 아빠를 닮았다.
㉢ 네가 지금처럼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는 '찬호와 아빠의 닮음'이라는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의 '붙었다'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쓰였지만, 발화시에서 볼 때 '대학에 붙는 일'은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사건이다.

1. 밑글을 읽고 <보기>의 ㉠ ~ ㉢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보 기></p> <p>㉠ 아기가 새근새근 잘 잔다. ㉡ 영주는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다.</p>

㉢ 전국적으로 비가 곧 내리겠습니다.

- [3점]
- ① ㉠ :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시간 표현이 사용되었다.
 ② ㉡ : 관형사형 어미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③ ㉢ :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 사용되었다.
 ④ ㉢ : 시간 부사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⑤ ㉢ :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선 시간 표현이 사용되었다.

2.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점]
- ① 그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②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③ 봄날 거리에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④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었다.
 ⑤ 어린 동생과 싸웠으니 난 이제 어머니께 혼났다.

3.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학습 활동></p> <p>></p> <p>시제는 말하는 때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때인 사건시와의 선후 관계를 따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뉘며,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부사어 등을 통해 실현된다. 다음 자료를 분석해 보자.</p> <p>ㄱ. 창밖에는 눈이 내린다. ㄴ. 곧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ㄷ. 이것은 그가 내일 입을 옷이다. ㄹ. 내가 만든 빵을 형이 맛있게 먹더라.</p>

- [2점]
- ① ㄱ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②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③ ㄴ과 ㄷ 모두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④ ㄷ과 ㄹ 모두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⑤ ㄱ, ㄴ, ㄹ 모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인용 조사, 인용절의 종결 어미, 대명사,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등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음 직접 인용 문장을 간접 인용 문장으로 바꿀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분석해 보자.

ㄱ. 그는 나에게 “당신은 제 책을 보셨습니까?”라고 물었다.

ㄴ. 나는 어제 그에게 “그녀는 내일 도착합니다.”라고 말했다.

[3점]

- ① ㄱ은 인용절의 높임 표현이 바뀐다.
- ② ㄴ은 인용절의 시간 표현이 바뀐다.
- ③ ㄱ은 ㄴ과 달리 인용절의 대명사가 바뀐다.
- ④ ㄴ은 ㄱ과 달리 인용절의 종결 어미가 바뀐다.
- ⑤ ㄱ과 ㄴ은 모두 인용절에 연결된 인용 조사가 바뀐다.

5.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 ~ ㉣에 대해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시제란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 발화시와 사건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뉩니다. 시간 표현은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어 등으로 실현되는데 문장에 따라 여러 요소를 동시에 쓰기도 합니다.

- 이곳이 우리가 함께 ㉠살 집이다.
- 교정이 ㉡곧 코스모스로 가득 차겠다.
- 아이들이 모여서 모래 장난을 ㉢한다.
- 나를 본 친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 우리가 함께 ㉤갈 바다는 노을이 무척 아름다웠다.

[2점]

- ① ㉠은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나중인 시제를 나타냅니다.
- ② ㉡은 시간 부사어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나중인 시제를 나타냅니다.
- ③ ㉢은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나타냅니다.
- ④ ㉣은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앞선 시제를 나타냅니다.
- ⑤ ㉤은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나타냅니다.

6. <보기>의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습 자료]

- 직접 인용 :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큰따옴표(“”)에 넣어 인용하는 것. 조사 ‘라고’를 사용함.
- 간접 인용 :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하는 것. 조사 ‘고’를 사용함.

[학습 과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보자.

ㄱ. 지아가 “꽃이 벌써 꺾으냐!”라고 했다.

→ 지아가 꽃이 벌써 꺾다고 했다.

ㄴ.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어요”라고 했다.

→ 지아가 버스가 벌써 갔다고 했다.

ㄷ. 나는 어제 지아에게 “내일 보자.”라고 했다.

→ 나는 어제 지아에게 오늘 보자고 했다.

ㄹ. 전학을 간 지아는 “이 학교가 좋다.”라고 했다.

→ 전학을 간 지아는 그 학교가 좋다고 했다.

ㅁ.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다.

→ 지아는 나에게 민지가 자기를 불렀다고 했다.

[2점]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7.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은 용언의 어간에 붙어 화자의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의 의미로 쓰인다.

[2점]

- ①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야 말겠다.
- ② 그렇게 쉬운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 ③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
- ④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겠다.
- ⑤ 지금 떠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행위, 사건, 상태의 시간적 위치를 언어적으로 나타내 주는 문법 범주를 시제라고 한다. 시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인 사건시와 그 사건을 언어로 표현하는 시점인 발화시의 선후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로, 주로 선어말 어미 ‘-았-/었-’을

통해 실현된다. 또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는 ‘-던’을 통해 실현된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로, 동사에서는 선어말 어미 ‘-ㄴ-/-는-’ 및 관형사형 어미 ‘-는’을 통해서 실현되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통해 실현되거나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을 사용하여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로, 선어말 어미 ‘-겠-’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관형사형 어미 ‘-(으)ㄴ’, 관형사형 어미 ‘-(으)ㄹ’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으)ㄹ 것’을 통해서도 실현된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어제, 지금, 내일’ 등과 같은 부사어를 사용하여 시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시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문법 요소가 언제나 특정한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어말 어미 ‘-ㄴ-/-는-’은 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만 ㉠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기도 하고, 선어말 어미 ‘-겠-’은 주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만 ㉢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기도 한다.

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비가 지금 내린다.
- ㉡ 비가 내일 내릴 것이다.
- ㉢ 내가 찾아간 곳에 비가 많이 내렸다.

[3점]

- ① ㉠에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가 나타난다.
- ② ㉡에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③ ㉢에는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④ ㉠과 ㉡에는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⑤ ㉡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난다.

9. 밑글을 참고할 때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 잠시 후 결과가 발표된다.
 ㉢: 일찍 출발하느라 고생했겠다.
- ② [㉠: 삼촌은 곧 여기를 떠난다.
 ㉢: 잠시만 비켜주시겠습니까?
- ③ [㉠: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다.
 ㉢: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 ④ [㉠: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 이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⑤ [㉠: 그가 내 의도를 알아채고 웃는다.
 ㉢: 우리 고향은 이미 추수가 다 끝났겠다.

10. 밑글 친 부분에 주목하여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그는 어제 고향을 떠났다.
- ㉡. 지난겨울에는 정말 춥더라.
- ㉢. 친구와 함께 본 영화는 재미있었다.
- ㉣. 작년만 해도 이곳에는 나무가 적었었다.
- ㉤. 축제 준비를 하려면 오늘 밤 잠은 다 자네.

[2점]

- ① ㉠을 보니,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고 있군.
-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군.
- ③ ㉢을 보니,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여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군.
- ④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었었-’을 사용하여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군.
- ⑤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지 않기도 하는군.

11.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
 - ▶ 동사는 선어말 어미 ‘-는-/-ㄴ-’의 결합으로, 형용사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냄.
 - ▶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했을 때, 동사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냄.

[2점]

- ① ‘감이 뭇다’에서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뭇다’는 형용사이군.
- ② ‘책을 읽는다’에서는 선어말 어미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읽다’는 동사이군.
- ③ ‘친구와 논다’에서는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논다’는 동사이군.
- ④ ‘집에 간 사람’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다’는 동사이군.
- ⑤ ‘우리가 이긴 시합’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기다’는 형용사이군.

12. <보기>를 참고할 때,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등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 그대로 옮겨 표현하는 것을 '직접 인용', 원래의 내용을 전달하되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 한다.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와 종결 표현에 따른 문장 부호를 사용하고, 조사 '라고'를 붙여 표현한다. 간접 인용은 문장 부호 없이, 앞말의 종결 어미에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한다. 간접 인용문은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직접 인용문과 비교할 때 인칭,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어제 진우는 "내일 떠나고 싶다."라고 했다.

→ 어제 진우는 오늘 떠나고 싶다고 했다.

㉡아들이 나에게 "잠시만 집에 계세요."라고 했다.

→ 아들이 나에게 잠시만 집에 있으라고 했다.

㉢그 바다에서 아영이는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라고 했다.

→ 그 바다에서 아영이는 자기는 그곳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2점]

- ① ㉠: 직접 인용문에서 쓰인 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문에서 '고'로 달라졌다.
- ② ㉡: 직접 인용문에서 쓰인 시간 표현 '내일'이 간접 인용문에서 '오늘'로 달라졌다.
- ③ ㉢: 직접 인용문에서 실현된 주체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문에서 객체 높임 표현으로 바뀌었다.
- ④ ㉣: 직접 인용문에서 쓰인 1인칭이 간접 인용문에서 3인칭으로 바뀌었다.
- ⑤ ㉤: 직접 인용문에서 쓰인 지시 표현 '이곳'이 간접 인용문에서 '그곳'으로 달라졌다.